



2010년 인쇄 및 관련산업 실적 분석

10인 이상 사업체 1342개사 경기도 생산액 · 부가가치 1위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따르면 2010년 현재 10인 이상 인쇄 및 관련산업의 사업체는 1342개사로 2009년도의 1322개사보다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도 2009년도의 2만9987명보다 1.5% 증가한 3만437명을 기록했다. 생산액은 2009년의 4조555억8천만원보다 9.8% 증가한 4조452억6천만원으로 집계됐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10인 이상 사업체 2008년 대폭 감소 후 소폭 증가세

2010년 10인 이상 인쇄 및 관련업체 사업체 수는 1342개사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인쇄 및 관련산업 추이를 살펴보면 사업체수는 점차 증가하다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위기로 급격히 하락한 후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모양새다.

2006년 전체 인쇄 및 관련산업의 업체 수는 1261개사였으나 2007년에는 1402개사로 141개사가 늘었다. 2008년에는 86개사가 줄어든 1316개사였다. 2009년에는 6개사가 늘어난 1322

개사, 2010년은 20개사가 늘어난 1342개사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인쇄업은 2006년 903개사였으나 2007년에는 1012개사로 109개사가 늘었다. 2008년에는 945개사로 67개사가 줄어들었다가 2009년에는 29개사가 늘어난 674개사, 2010년은 9개사가 늘어난 983개사로 소폭 늘었다.

인쇄관련산업은 2006년 358개사였으나 2007년에는 390개사로 32개사가 늘었다. 2008년에는 19개사가 줄어든 371개사, 2009년에는 23개사가 줄어든 348개사였다. 2010년은 11개사가 늘어난 359개사로 집계됐다.

이중 지난 2009년보다 사업체수가 줄어든 것은 기타인쇄업과 제책업이었다. 기타인쇄업은 2009년 642개사에서 2010년 605개사로, 제책업은 2009년 185개사에서 2010년 181개사로 줄었다. 특히 기타인쇄업은 최정점이던 2007년 682개사에서 매년 감소해 2010년에는 605개사에 불과해 2007년에 비해 1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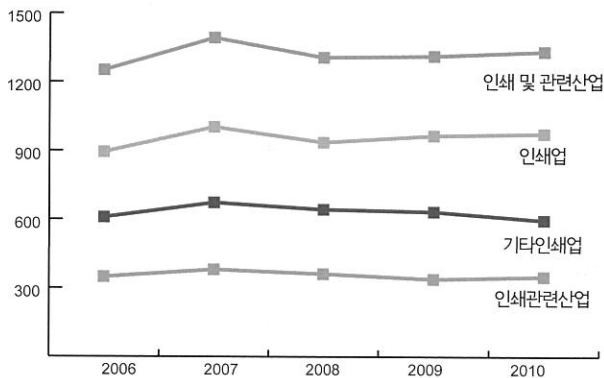
92% 영세사업자가 55.6% 종사자 고용

2010년 현재 등록된 1인 이상 인쇄 및 관련업체의 총 사업체는 1만6284개 사이며, 종사자는 6만8528명이었다. <월간 프린팅코리아 2012년 7월호 참조>

즉, 인쇄 및 관련산업의 1인 이상 9인 이하 사업체는 1만4942개사로 전체의 91.76%를 차지해 영세한 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인 이상 사업체는 10%도 안되는 8.24%에 불과했다. 9인 이하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는 3만8091명으로 55.58%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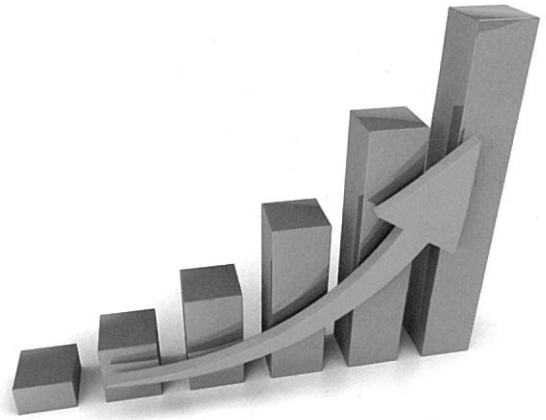
연도별 인쇄 및 관련산업 사업체 현황 (단위 : 개)

산업별	2006	2007	2008	2009	2010
경 인쇄업	132	162	153	174	198
스크린 인쇄업	153	168	140	158	180
기타 인쇄업	618	682	652	642	605
인쇄업	903	1,012	945	974	983
제판 및 조판업	157	152	144	122	132
제책업	168	195	185	185	181
기타 인쇄관련 산업	33	43	42	41	46
인쇄관련 산업	358	390	371	348	359
인쇄 및 관련산업	1,261	1,402	1,316	1,322	1,342



10인 이상 사업체수 서울과 경기 공동 1위 종사자수 생산액 부가가치는 경기도 1위

조사된 지역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생산액, 부가가치 등의 항목을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도의 사업체수는 532개사로 똑같았지만 이를 제외한 종사자수, 생산액, 부가가치 항목에서 서울을



제치고 경기도가 모두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기도에 위치한 사업체가 서울보다 더 많은 종사자들을 고용하고, 이에 따른 생산액과 부가가치 역시 높게 나타난 것이다. 반면에 제주도는 10인 이상 기업이 하나도 없었다.

경기도와 서울의 사업체 수는 532개사로 같았지만 종사자는 경기도가 1만3282명, 서울이 1만988명으로 경기도가 2294명이 많은 종사자가 고용돼 있었다. 부산 52개사 914명, 대구 45개사 1236명, 인천 38개사 1122명이었었다. 즉, 경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5개 지역에 1199개 사업체에 2만7542명이 근무해 전국 인쇄사의 90%가 밀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경상남도 34개사 653명, 대전 25개사 386명, 광주 19개사 435명, 충청북도 15개사 339명, 경상북도 15개사 310명, 충청남도 12개사 291명, 전라북도 11개사 259명, 울산 5개사 111명, 전라남도 4개사 58명, 강원도 3개사 53명 순으로 집계됐다.

생산액은 경기도가 1조9998억4700만 원으로 조사돼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서울이 1조5973억2300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대구 1906억6600만 원, 인천 1469억 원, 부산 1022억700만 원, 광주 833억8200만 원, 경상남도 770억 8600만 원, 충청북도 558억8600만 원, 충청남도 442억200만 원, 대전 419억3100만 원, 울산 389억8500만 원, 경상북도 317억1700만 원, 전라북도 256억9200만 원, 강원도 126억9800만 원, 전라남도 43억3800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 역시 경기도가 9826억5600만 원으로 제일 많았다. 다음으로 서울이 7433억5700만 원, 인천 814억7500만 원, 대구 785억300만 원, 부산 531억1400만 원, 경상남도 350억1200만 원, 광주 269억800만 원, 충청남도 222억6200만 원, 대전 214억4200만 원, 충청북도 197억7300만 원, 경상북도 193억4900만 원, 전라북도 87억7400만 원, 울산 82억3200만 원, 강원도 56억300만 원, 전라남도 23억3300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

행정구역별 2010년 10인 이상 인쇄 및 관련산업 현황



행정구역별 2010년 10인 이상 인쇄 및 관련산업 현황 (단위: 개, 명, 백만원)

행정구역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부가가치
서울	532	10,988	1,597,323	743,357
부산	52	914	102,207	53,114
대구	45	1,236	190,666	78,503
인천	38	1,122	146,900	81,475
광주	19	435	83,382	26,908
대전	25	386	41,931	21,442
울산	5	111	38,985	8,232
경기	532	13,282	1,999,847	982,656
강원	3	53	12,698	5,603
충북	15	339	55,886	19,773
충남	12	291	44,202	22,262
전북	11	259	25,692	8,774
전남	4	58	4,338	2,333
경북	15	310	31,717	19,349
경남	34	653	77,086	35,012
전국	1,342	30,437	4,452,860	2,108,793

제책업 사업체수·종사자수 감소세 뚜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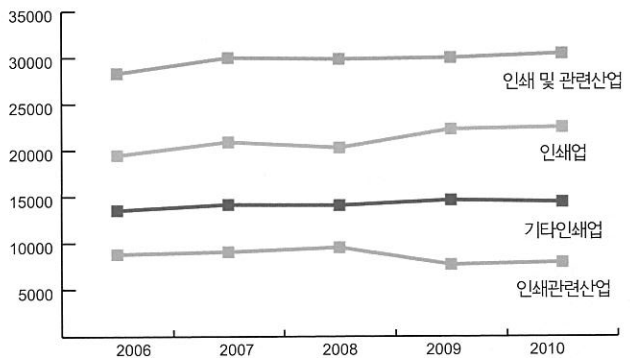
2010년 10인 이상 인쇄 및 관련업체 종사자 수는 3만437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인쇄 및 관련산업의 종사자수 추이를 살펴보면 10인 이상 사업체수와 마찬가지로 점차 증가하다가 2008년 하락한 후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모양새다. 2006년 전체 인쇄 및 관련산업의 종사자 수는 2만8332명이었으나 2007년에는 3만18명으로 1686명 늘었다. 2008년에는 169명 줄어든 2만849명, 2009년에는 138명 늘어난 2만9987명, 2010년은 450명 늘어난 3만437명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인쇄업은 2006년 1만9493명에서 2007년에 2만923명으로 늘었다가 2008년에는 2만297명으로 626명 줄었다. 2009년에는 1088명 늘어난 2만285명, 2010년은 210명 늘어난 2만495명으로 나타났다.

인쇄 관련산업은 2006년 8839명, 2007년에는 9095명, 2008년 955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09년에는 1850명이나 감소해 7702명까지 푹 떨어졌다. 다행히 2010년에는 7942명으로 240명이 다시 늘었다.

한편 기타인쇄업과 제책업은 2009년보다 사업체수가 줄었다. 기타인쇄업은 2009년 1만4653개사에서 2010년 1만4446개사로, 제책업은 2009년 4126개사에서 2010년 3900개사로 감소한 것이다. 특히 제책업은 종사자도 2006년 4497명보다 13.28%나 감소했다.

연도별 인쇄 및 관련산업 사업체 현황 (단위: 개)



산업별	2006	2007	2008	2009	2010
경 인쇄업	2,680	3,103	3,166	4,194	4,254
스크린 인쇄업	3,246	3,637	3,035	3,438	3,795
기타 인쇄업	13,567	14,183	14,096	14,653	14,446
인쇄업	19,493	20,923	20,297	22,285	22,495
제판 및 조판업	3,527	3,597	4,379	2,688	3,078
제책업	4,497	4,661	4,234	4,126	3,900
기타 인쇄관련 산업	815	837	939	888	964
인쇄관련 산업	8,839	9,095	9,552	7,702	7,942
인쇄 및 관련산업	28,332	30,018	29,849	29,987	30,437

제판 및 조판업 등 인쇄관련산업 추락후 반등

최근 5년간 인쇄 및 관련산업의 생산액을 살펴보면 인쇄 및 관련산업은 5년 동안 끊임없이 증가해왔다. 특히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로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산업별 총생산액이 늘어난 것은 경제위기를 인쇄인들이 슬기롭게 헤쳐나갔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다만 제판 및 조판업은 2009년 큰 폭의 하락을 경험했다.

2006년 전체 인쇄 및 관련산업의 생산액은 3조2822억5600만원이었으나 2007년에는 3조5127억6200만원으로 2305억600

만 원 늘었다. 2008년에는 4047억1700만 원 늘어난 3조9674억7900만 원, 2009년에는 881억100만 원 늘어난 4조555억8천만 원, 2010년은 3972억8천만 원 늘어난 4조4528억6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인쇄업은 매년 꾸준히 상승했다. 2006년 2조4879억6700만 원, 2007년에는 2조6556억7600만 원, 2008년 3조266억7500만 원, 2009년 3조2237억3100만 원, 2010년은 3조5508억52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인쇄 관련 산업은 2006년 7942억8900만 원, 2007년에는 8570억8600만 원, 2008년에는 9408억400만 원이었다. 2009년에는 제판 및 조판업의 생산액 하락에 따라 1089억5500만 원 줄어 8318억4900만 원을 기록했다. 2010년에는 9020억800만 원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인쇄 및 관련산업 사업체 현황 (단위 : 개)

산업별	2006	2007	2008	2009	2010
경 인쇄업	292,949	395,690	431,222	528,069	576,121
스크린 인쇄업	290,328	322,733	328,181	369,497	477,469
기타 인쇄업	1,904,690	1,937,253	2,267,272	2,326,165	2,497,262
인쇄업	2,487,967	2,655,676	3,026,675	3,223,731	3,550,852
제판 및 조판업	397,027	462,232	512,914	345,038	390,863
제책업	334,509	320,661	339,495	376,888	395,852
기타 인쇄관련 산업	62,753	74,193	88,395	109,923	115,293
인쇄관련 산업	794,289	857,086	940,804	831,849	902,008
인쇄 및 관련산업	3,282,256	3,512,762	3,967,479	4,055,580	4,452,860

부가가치 꾸준히 증가... 2조원대 돌파

2006년 1조6500억원이었던 인쇄 및 관련산업의 부가가치가 2010년 드디어 2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2008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는 크게 하락했지만 부가가치는 오히려 다른 해보다 2배나 높은 12.24% 상승한 것이 주목할만 하다.

2006년 전체 인쇄 및 관련산업의 부가가치액은 1억6576억9800만 원, 2007년에는 1조7325억8300만 원, 2008년에는 1조9446억4300만 원, 2009년에는 1조9584억9700만 원이었으며, 2010년 드디어 2조원을 돌파한 2조1087억9300만 원을 기록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인쇄업도 꾸준히 상승했다. 2006년 1조2125억 원, 2007년에는 1조2445억4800만 원, 2008년 1조4157억8600만 원, 2009년 1조4955억7300만 원, 2010년은 1조6226억1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타인쇄업은 2008년 1조원을 넘긴 이래 꾸준히 성장해 오고 있으며, 스크린인쇄업도 2009년 1780억100만 원보다 29.2%나 증가해 2300억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인쇄관련산업은 2006년 4451억9800만 원, 2007년에는 4880억3500만 원, 2008년에는 5288억5700만 원이었다. 2009년에는 659억3300만 원 줄어 4629억2400만 원에 그쳤지만 2010년에는 232억5800만 원 늘어난 4861억8200만 원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

